

세계적 수요감소·인플레이에 인력난까지... 'K-반도체' 난항

삼성·중양메모리, 생산 확대에 공급 늘어 웨이퍼가격 하락 전망 D램 가격 하락 등 시장침체 우려

국내 반도체 부족에 장비공급 차질 인력난에 근거없는 루머 시달려 삼성 '대규모 M&A' 골든타임 놓쳐

국내 반도체 업계에 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렌드포스는 5월부터 낸드플래시 웨이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며 3분기 가격 하락폭이 5~10%에 달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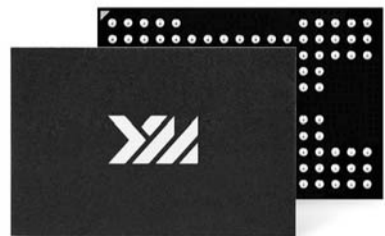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키옥시아 공정 오염 등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대와는 달리 2분기 보합세를 유지한 상황, 그나마 서버용 수요가 강해서 3분기에는 0~5%의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소비재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올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전망>

1분기	2분기	3분기
5~10% ↓	5~10% ↑	0~5% ↑

(자료=트렌드포스)



YMTC 낸드 플래시 메모리

/YMTC

중국의 봉쇄 정책에 더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와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렌드포스는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꾸준히 생산량을 늘리는 가운데, 중국 양쯔메모리(YMTC)까지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YMTC는 128단 낸드 양산을 안정화했고,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시작한 상태다.

D램도 가격이 힘을 못내고 있다. 낸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인근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드와 같은 이유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침체도 우려되면서 하반기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경쟁은 더 과열됐다. 인텔이 막대한 투자를 빠르게 집행하는 가운데, TSMC는 1.4나노 공정 계획을 새로 발표하며 1위 굳히기에 나섰다. 3나노에서 기술 역전을 베풀는 삼성전자와 '옵스트롱' 시대를 먼저 준비하는 인

텔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반도체 생산 가격을 8% 올리기로 하면서 또다시 역대급 투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적인 문제도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새로운 장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인력난 속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있다. 임금 인상 뿐 아니라 근거없는 루머까지 양산되면서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대차, '온돌' 같은 편안함... 특허출원 콘셉트 공개

자체개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 완전 자율주행 전제... 조작부 없어 탑승자의 '온전한 휴식' 위한 설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이번엔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을 모티브로 만든 시트다.

현대차그룹은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를 15일 'HMG 테크 사이트'에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사이트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특허 출원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번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의 이동과 거주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트 부분이다. 현대차그룹은 특수한 시트 구조와 온돌 특유의 열전도에서 모티브를 얻은 난방 체계로 모빌리티의 색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수한 시트 구조와 온돌 특유의 열전도에서 모티브를 얻



현대자동차가 자체개발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 이미지.



풀 플랫폼 시트 모드별 자세 (왼쪽부터) 기본 자세, 릴렉스 자세, 풀 플랫폼 자세.

은 난방 체계로 모빌리티의 색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온돌은 온돌 난방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실내 공간을 구성한 콘셉트다. 탑승자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

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모빌리티 온돌에는 주행을 위한 별도의 조작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탑승자가 이동하는 동안 온전히

휴식에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승차 공간을 설계했다. 앞뒤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대칭으로 구성해 탑승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어 트림 내부에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 물건을 올려놓거나 식사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어 트림 포켓도 글로브박스 정도의 넓은 수납 공간으로 바꿨다.

침대 모드 사용 시에는 시트백이 뒤로 이동해 누울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며 레그레스트가 시트 쿠션과 평행을 이루며 평평한 구조를 만든다. 탑승자는 플로어와 고정 가능한 체결장치가 있는 안전 담요를 덮고 취침하면 된다.

이처럼 휴식이 가능한 이유는 '풀 플랫폼 시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개발 중인 이 시트는 경첩 및 지지 구조를 달리해 일반적 좌좌 자세는 물론 탑승자 피로도를 줄여주는 자세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듀얼업 모니터

/LG전자

LG전자 자유자재 회전하는 '듀얼업 모니터' 출시

LG전자가 마음대로 돌아가는 모니터를 내놓는다.

LG전자는 LG 듀얼업 모니터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듀얼업 모니터는 28형 나노 IPS 디스플레이에 16 대 18 화면비를 적용한 제품이다. 21.5형 모니터 2대를 위아래로 붙인 형태로, 세로로 길게 만들어졌다.

특히 듀얼업모니터는 LG 360 스탠드로 화면을 가로 90°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피벗과 좌우로 335° 까지 돌릴 수 있는 스위블을 지원한다. 최대 165mm 범위 내에서 높이 조절도 가능해 사용자의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 가능하다.

LG전자는 한 눈에 화면 전체를 보기 위해 모니터를 위아래로 놓고 사용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사용자 경험에 착안했다.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해 영상편집 작업을 하는 유튜브나 많은 코드를 스크롤 없이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프로그래머, 여러 작업물을 동시에 띄워놓고 검토해야 하는 디자이너 등 멀티태스킹 작업이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PC 2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PBP 기능으로 PC 2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윈도우와 맥북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나서

대만 업체 '프롤로지움'과 협력

포스코홀딩스가 '꿈의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15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회사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프롤로지움'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2일 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 및 핵심소재인 전고체 배터리 전용 양극재와 실

리콘 음극재, 고체전해질 공동개발,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에 설립된 프롤로지움은 2012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스마트워치 등 소형 IT기기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또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독일의 다임러 그룹 등 주요 완성차업체와 함께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ISE 2022서 기술력 인정받아

'더 월' 등 5개제품, 최고의 신기술

삼성전자가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1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SE 2022'에서 다수 어워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는 ISE 공식 미디어 파트너인 '커머셜 인티그레이티'와 'CE Pro'가 '더 월' 등 5개 제품을 '최고의 신기술'로 선정했다.

특히 더 월은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와 바이오월 하드웨어 등 2개 부문에서 어워드를 받았다.

사이니지 전문 운영 솔루션인 '매직인포'와 '아웃도어 사이니지(OHA 시리즈)'도 각각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 아웃도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삼성 플립 프로'는 전자책 판 부문에서 최고의 신기술로 선정됐다.

/김재용 기자